

三星반도체통신(주)

기획담당 韓義鉉 상무와

통신과 半導体 컴퓨터상호의존 제품으로

高品質 첨단제품 개발생산

『현대의 전자공학 분야에서 「마법의 돌」로 경이의 대상이 되고 있는 半導体和 컴퓨터가 通信을 중심으로 상호의존적인 제품群을 이뤄 하나의 기업조직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기업의 미래지향의 발전적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믿습니다.』

작년 7월에 240억원에 달한 신주공모를 통해 기업을 공개하여 투자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던 삼성반도체통신(주)의 기획담당 韓義鉉 상무이사는 반도체, 광통신, 컴퓨터, 전자식교환기등 소위 첨단산업기술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회사의 앞날에 남다른 자부심을 털어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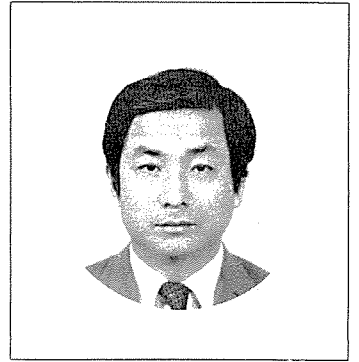
그도 그럴것이 삼성반도체통신은 몇년전까지만해도 사실상 그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난 82년 삼성전자로부터 반도체사업을 인수한후 기존의 전자교환기사업 일변도에서 탈피, 반도체와 컴퓨터, 광통신, 사무자동화기기등 장래가 유망한 첨단산업 전자분야에 대형 투자를 추진하면서 삼성그룹의 주력기업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삼성반도체통신은 회사 이름에 나타나듯 1982년에 韓國반도체(주)로부터 반도체사업을, 그리고 국영기업이던 韓國전자통신(KTC)으로부터 통신부문사업을 발전적으로 통합인수함으로써 이 기업의 사업전개에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아시아시피 우리나라의 통신사업은 70년대말까지도 기계식교환시설을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80년대를 넘어오면서 삼성반도체가 美國의 ITT와 기술제휴로 반전자식 교환기인 MIOCIN을 생산하는등 국내 몇개 전자통신관계회사에서 겨우 반전자식교환기에 손을 대기 시작할때였으니까요』

韓상무는 현재의 계속적인 연구개발의 성과에 힘입어 오는 85년말까지는 쏠 전자식교환기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끝내면 바로 86년부터는 컴퓨터가 핵심인 동사의 새 전자식교환기가 납품, 설치될것으로 전망한다.

이 제품은 한마디로 통신과 컴퓨터의 도킹현상이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세계적인 통신산업의 발전추세에 만족할만큼 최근접한 첨단 전자통신제품으로



기대를 걸고있다. 『현대의 통신산업이 새로운 혁신제품을 창출할수 밖에 없는 것은 과학기술의 발달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다마는 오늘날의 국제사회, 국가와 사회 모두가 필요하고도 충분한 情報내지 정보망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수 있겠습니다.』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는 진리가 먼곳에 있는 것이 아님을 여기서도 미루어 알만 하다. 전자통신분야가 현대인의 막대한 정보요구를 제대로 들어주기 위해서는 「뉴미디어」로서의 탈바꿈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날로 개발혁신되어가고 있는 세계의 각종 전자통신산업의 결정들을 보면 쉽사리 알수 있을 듯.

그래서 삼성반도체통신도 日本의 NEC가 지향하는 성장추구의 모델에 깊은 관심을 갖고 대처해나가고 있다는게 韓상무이사의 설명.

『통신 한가지만으로는 다양한 Need를 결코 충족시킬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미 착수하여 괄목할 성과를 걸고있는 통신과 컴퓨터, 그리고 반도체라는 트라이앵글, 즉 상호의존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제품의 개발과 생산이야말로 미래산업적인 시도요 또 당연하다고 믿

습니다.」

특히 사무자동화(OA), 공장 자동화(FA), 가정자동화(HA)의 시대에서는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은 필연적인 것으로서 이는 소비자,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런 흐름이 아니겠느냐는 것이 韓상무의 반문이다.

三星반도체통신(주)의 비록 짧은 연륜에서나마 또다른, 한 가지 획기적 사업전개를 꾀한다면 84년 6월부터 소위 현대통신산업의 총아로 지칭되는 光섬유의 생산과 이에 따른 光통신사업에의 본격적인 참여를 들수 있겠다. 이미 미국ITT사와 협력, 富川에다 年 3만 6천 km의 생산능력을 갖춘 공장이 작년엔 완공되어 光섬유는 물론 光전송기기등을 일괄생산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현재 光섬유제품의 民需는 초기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부주도의 官需가 활발해질때 제품의 질적 고도화와 다양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韓상무에 의하면 앞으로는 光섬유를 이용한 응용제품개발과 생산, 즉 光Sensor를 이용한 Security System이나 어군탐지기 같은 제품의 개발에 역점이 주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현재 光섬유제품은 국내의 4개 그룹회사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三星반도체의 기술도입선인 美国ITT社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타사에 비해 생산수율면에서나 Loss율등 품질수준면에서 앞서가고 있다는게 개발 및 생산부서의 얘기다.

『우리 회사의 자라는 뛰니 뛰

니해도 83년에 세계에서 세번째로 64KD램 반도체와 국내에선 처음으로 16비트 슈퍼마이크로컴퓨터를 순수 우리기술로 개발하여 세계를 놀라게한 것이죠. 작년엔 첨단제품인 64KD램의 양산공장을 준공한데 이어 기흥공장에서는 256KD램 등 초대규모집적회로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두뇌의 적극유치, 국내의고급연구기관과 대학등의 끊임없는 연수는 회사가 가장 신경을 쓰는 분야.

『반도체나 통신이나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것은 우리 독자의 기술개발능력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축적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는 금년부터 해외시장의 적극개척에

지속성장.....世界3번째

64KD램 自力生産해 기업

韓상무는 이러한 일련의 계속적인 제품개발과 신제품의 생산에는 동사 종합연구소(통신: 富川, 반도체: 器興소재)의 연구개발력이 가장 큰 뒷받침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반도체와 컴퓨터를 중심으로 교환기분야, 그리고 디지털과 무선전송에 주력점용둔 전송분야 및 OA와 시스템분야, 기초-기본기술분야별등 성격별 연구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 금년의 연구개발비는 매출대비 8%를 상회할 것으로 봅니다. 아마 금년말쯤에는 통신분야의 기술인력만해도 4백40여명에 육박할 겁니다.』

나서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독자적인 제품설계개발능력의 함양으로 무척 전망이 밝다고 느낍니다. 수요의 창출도 중요하지만 제품의 고품위성등, 소비자의 신뢰를 제일로 하지 않으면 제품이 설 땅을 잃게될 테니까요』

三星반도체통신은 이러한 국내외의 여건과 시점에서 나름대로 돌다리도 두들겨가는식의 완벽한 경영상의 메리트에 더해 三星특유의 왕성한 사업력과 연구개발 의욕에 자신만만한 전자통신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韓상무는 밝은 미래를 내다본다.



三星반도체통신 龜尾光케이블공장